

# 쇠고기 부위별 판매제

## 시행 제대로 안돼

쇠고기 부위별 판매제가 시행 한달이 지나도록 일반 정육점은 물론 축협직매점에서조차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부위별 판매제를 시행하고 있는 백화점에서도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가격을 편법으로 인상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기업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9월 18일부터 쇠고기 부위별 판매제를 시행한 이후 일부 백화점과 농협슈퍼마켓에서는 그런대로 시행되고 있으나 축협직매점과 일반정육점에서는 전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축산기업조합중앙회는 그 이유로 보사부에서 정한 규정에는 부위별 판매 가격표시판을 가로 15cm, 세로 10cm로 제작, 진열장위에 부착토록 하고 있으나, 이 규격대로 설치하면 고기는 보이지 않고 가격표시판만 보이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규정에는 진열장내에는 「붉은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그것을 대체할 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대체등」 제작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에서는 100여개 정육점에서 진열장 등을 갖추고 구청에 부위별판매업소로 신

고를 해 놓고 있으나, 이와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아 부위별 판매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밖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가 최근 서울지역 부위별 판매시범업소 20개소(백화점 13, 농협슈퍼마켓 7)를 대상으로 조사한바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대부분이 일반정육점보다 가격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백화점의 경우 쇠고기 100g당 가격이 986원으로 연동가격 860원보다 14.7%가 높았다. 특히 안심 등 특등부위는 500g에 8천원까지 받아 연동가격 4천 3백원보다 배 가까이 비쌌고, 대신 가격을 낮추어야 할 보통부위(양지, 사태)도 연동가격보다 오히려 비싸게 팔고 있었다.

정부가 각고끝에 다시 재개한 부위별판매제가 초반부터 준비소홀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가격만 올리는 결과를 낳는다면 시행하지 않느니만 못할 것이다.

돼지고기의 부위별 판매제 시행을 앞두고(언제될지는 모르지만) 있는 양돈인들로서는 쇠고기 부위별 판매제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취재 : 김동성)